

예산난에 ... 좁아지는 국악 무대

남도국악원 6월까지 공연 중단
기계장치·공연장 등 재정비
'그린국악' 2회 공연 취소
'광주상설공연' 폐지도 큰 공백



공연폐지, 시설 재정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상반기 지역 전통예술 공연기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국립남도국악원 '깨비 친구 삼살이'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지난 6년여 간 국악 공연 등을 선보여 온 '광주 상설공연'이 폐지(광주일보 2024년 12월 26일 17면)된 가운데 최근 공연장 재정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맞물리면서 전통공연 예술계가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먼저 국립남도국악원은 공연장 재정비를 위해 오는 6월까지 '2025 토요일상설 공연'을 중단했다. 이번 정비는 하루 무대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구동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무대 플로어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된다. 작동 불능 상태인 연주 승강무대(오케스트라 피트 등)도 함께 재정비한다.

공사 대상인 진악당(珍樂堂)은 520여 석 규모의 국악전용극장으로 연면적 5,537㎡(지하1층, 지상 3층)에 객석 규모 520석(645㎡)에 달한다. 2004년 3월 준공 이래 20여 년이 지났기에 노후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뒤따라 왔다.

토요일상설은 지난해 '공명콘서트-공명유희'를 비롯해 '판, 그리고 굿', 진도씻김굿 보존회 초청 공연 '진도 씻김굿', 아동극 '내가 반장이 된다면', 기획공연 명인전 '정수' 등을 펼쳤다.

전체 공연 객석점유율은 회당(작년 평균) 43.49%로 높지 않으나, 대부분 무료 공연이라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소중한 문화 향유 기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악원 관계자는 "부득이한 시설 정비로 '토요일상설 공연'은 잠시 쉬어 가지만 다른 공연장에서 대체성으로 열리는 무대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연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시립예술단 단원을 비롯해 민간단체가 무료로 선보여 온 '광주상설공연' 폐지도 큰 공백이다.

지역 공연계는 작년부터 예산 감축으로 '광주상설 공연' 폐지를 접쳐 왔다. 광주상설공연은 작년 이맘때 '신년특별기획'을 비롯해 광주시향, 전통연희놀이연구회 등 무대로 채워진 바 있다.

상설공연은 그간 지역민에게 1000회 넘는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광주시가 본예산안에 공연보상비 없이 운영비만 편성하면서 운영이 어렵게 됐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최근 누리집에 배너를 내걸고 지난 4월과 오는 11일 예정됐던 '그린 국악' 공연 취소를 알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정된 국가예도기간에 발맞춘 조치다.

당초 예정됐던 공연은 토요일 가무악회 '그린국악' 2025년 첫 시즌으로 무안군 남도소리유희터 공연장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4일 '용강기나리'를 비롯해 '사물놀이 판굿', '부채춤', 11일 '국악 실내악-미로', '강선영류 태평무', '박병천류 진도북춤' 등이 레퍼토리에 있었으나 무산됐다.

국악단 관계자는 "국가 예도기간 지정에 따라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바란다"며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신 오랜 시간 공들여 다듬어온 전통 가무악회 작품들을 세심하게 집약해 선보일 예정이다"며 "3·1절 특집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나 토요일특별공연 '신춘음악회' 등을 준비 중이다"고 했다.

상반기에는 비교적 작품이 부족할 수 있으나, 국악단은 연중 다양한 기획을 구상 중이다.

대표적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연희음악극, 하반기 전통창극, 지역 간 교류공연 '국악이음'이나 '깍지 손 국악' 등을 상연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요 공연 객석 점유율은 기획공연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오마주: 사제' (65%), 정기공연 '본: 가치를 탐하다' (93%) 등이었다.

이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도 4월부터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기에, 광주·전남에서 상반기 전통국악 무대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시아 역사·문화에 대한 탐색

ACC재단 '깁깁나무' 등 책 5종 발간...온·오프라인 서점서 판매

'깁깁나무', '개굴개굴 고래고래', '인도네시아 버내플러 디자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선옥)은 최근 다양한 도서를 발간했다. 책자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담은 팝업북을 비롯해 그림책 등이 포함돼 있다.

ACC재단은 올해 박현민 작가의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 아시아 문화예술 매거진 'Verb 2호_치다' 등 총 5종을 펴냈다.



최근에는 ACC 창작작 어린이 공연을 각색한 그림책 '깁깁나무'가 독자들을 찾아왔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져버린 '깁깁나무'를 찾으러 떠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렸다. 연극 원작자인 박세훈 작가가 각색에 참여해 퀄리티를 높였다.

지난 11월에는 디자인 전문도서 '인도네시아 버내플러 디자인'이 발간됐다. 인도네시아의 그래픽 디자인을 조명하는 책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탐색이 눈에 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8개국의 국화를 표현한 팝업북 '블루밍: 아시아의 꽃 이야기' 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재단은 어린이 그림책을 실감 콘텐츠로 개발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전시를 아제르바이잔 바쿠 북페어에 유통한 바 있다.

재단 김선옥 사장은 "전당재단은 앞으로도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새해에는 점자책이나 배리어 프리 도서 등 재단만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도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CC재단 발간 도서는 문화상품점 '들락'과 어린이문화원 내 상품점 '들락키즈'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야금 병창 50년' 명인의 무대

황승옥 명창, 11일 전통문화관서 독주회

판소리 단가나 주요 대목을 따서 반주를 얹는 '가야금병창' 명인의 무대가 펼쳐진다. (사)한국 전통문화연구회를 설립한 뒤 빛고을 기악대제전을 선보여 온 황승옥 명창(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황 명창이 '무형유산 보유자 황승옥 가야금병창 독주회'를 오는 11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등 주요 작품으로 구성됐다.

'심청가' 주요 대목인 '방아타령'을 시작으로 심봉사가 눈뜨는 마지막 장면인 '천지신명', '예소맹이', '감은 눈을 열찌구나 절찌구' 등으로 채워진다.

이어 '춘향가' 중에서도 이도령과 춘향의 애절한 사랑을 느낀한 장단에 풀어내는 '진양 사랑가'를 비롯해 '중모리 사랑가', '쑥대머리' 등이 울려 퍼진다.

'뫓뫓의 현운', '약성가', '여백과 주부야', '여보 나리' 등은 '수궁가' 주요 눈대목들이다. '탐상을 탕탕', '고고천년' 등 관객에게 익숙한 레퍼토리로 있다.

이외 '흥보가' 중 '구만리', '중 내려온다'나 제비의 보은을 다룬 '제비노정기', '제비점고'도 관객을 만난다.

복제는 제37회 전국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김태영 고수가 잡으며 유영대(전북도립국악원장) 사회로 진행된다.

한편 황 명창은 '가야금병창전집(1-3)' 발간을 통해 단가 오선보와 해설, 민요 역사와 국악가요, 불교·기독교 등 종교음악 등을 대중에게 쉽게 알



렸다.

황 명창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레퍼토리를 확장한 대목과 기존 원형을 간직한 눈대목들로 곡목을 편성했다"며 "가야금병창에 전념해 온 지 50년이 넘었다. 올해 첫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통의 '신명'을 선사하고 싶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활동 클래식 청년 인재 찾습니다

아르플래닛 24일까지 단원 모집

"음악적 시너지"를 일으킬 지역 클래식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청년 클래식음악 예술단체 '아르플래닛(대표 최혜지)'이 2025년 활동할 2기 멤버를 오는 24일(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광주·전라 출신 혹은 거주 청년예술인(만 39세 미만) 클래식 음악대학 전공자(재학·졸업)로 피아노, 관현악 파트만 가능.

선발된 인원은 공식 수료증과 공연 기회(최소 2회)를 제공하며 영상 기록·공연 사진, 예술활동

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동료들과 음악적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창단 1주년을 맞은 아르플래닛은 지난해 ACC에서 '창단 기념 음악회'를 비롯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예술의전당 등에서 총 6회 공연을 펼쳐 왔다.

1기 멤버로 전남대 출신 피아니스트 김민호를 비롯해 김세연, 김예본, 백계준, 양다원, 유예름, 정재은 등이 활동했다.

연회비 50만 원(공연 기록료 등 포함), 이메일 지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르플래닛' 공연 장면. <아르플래닛 제공>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